

# 코로나19 확산 차단 위해 공공시설 폐쇄

### 전주시, 도서관·청소년시설 등 모든 공공시설 대상... 다중이용 민간시설 폐쇄도 강력 권고

전북지역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전주시가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폐쇄키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진환자의 동선에 위치한 다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한 폐쇄도 권고키로 했다.

시는 김제시 거주자가 전주로 직장을 다니는 코로나19 환자 발생에 따라 지역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방역범위를 전주지역으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시설을 폐쇄 및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환자의 동선에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한 폐쇄도 권고키로 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우선 시는 모든 공공시설을 22일자로 폐쇄했다. 대표적으로 시립도서관 12곳과 청소년시설 13곳, 지역아동센터, 복지관, 요양시설, 경로당, 어린이집, 각종 지원시설 등 전주시의 직영 및 관리·운영 시설이다.

시는 21일 완산수영장, 덕진수영장, 서신동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을 휴원 조치하고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시는 또 많은 시민들이 찾는 민간시설 가운데 확진환자의 동선에 위치한

시설 역시 조속히 폐쇄할 수 있도록 해당시설 사업자에게 강력하게 권고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공문과 유선을 통해 시설 폐쇄를 권고해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중이용 민간시설은 대규모 판매시설, 공중목욕탕, 민간체육시설·놀이시설 등이다.

시의 폐쇄권고에 따라 지난 14일 확진판정을 받은 20대 남성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지난 21일 오후 3시 매장을 모두 폐쇄하고 방역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29일 감염증 위기 경보를 정부의 '경계'보다 한 단계 높은 '심각' 단계로 격상해 김승수 전주시장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 방역체계를 가동 중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 방역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동시에 전주시의 모든 공공시설은 물론 다중이용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폐쇄 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원천 차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시민 위해 안전 중점 공기업 만들 것”

### 백순기 제5대 전주시설공단 이사장 취임

제5대 전주시설공단 이사장으로 백순기(58) 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지난 21일 취임했다.



수행 등을 공단 운영 방침으로 내세웠다.

백 이사장은 전북 부안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1979년 당시 정읍군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전주시 주택행정과장과 김제시 경제개발국장, 전주시 완산구청장 등을 지냈으며, 전주시 최초로 지방 부이사관(3급)으로 승진해 복지환경국장을 역임하고 지난해 2월 명예퇴직으로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했다.

문화한 상품과 서비스의 자세로 동료들과 선·후배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7월 전주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한 직후 8개월간 이어진 시내버스 파업 사태의 해결을 주도했으며, 그해 10월 전주시 생애도시국장으로 부임한 후 항공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10년간 답보상태였던 35사단 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한 바 있다.

백 이사장은 2023년 2월 20일까지 3년간 이사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백 신임 이사장은 이날 오후 전주 시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직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백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라는 슬로건에 부합하는 우수한 지방공기업들을 만들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그는 특히 "전주시가 사람이 우선인 도시, 안전이 우선인 도시를 추구하는 바와 같이 시민을 위해 안전에 중점을 두고 수요자 중심의 시설 관리로 공적 가치를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화합하고 소통하는 조직문화 추구 △주인의식과 사명감 기반의 업무

## 전북경찰청, 화훼농가 돕기 나서

전북경찰청(청장 조용식)은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방문, 화훼농가 돕기에 나섰다.

조용식 청장을 비롯한 직원들은 화훼 농가를 방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의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서 톨립 350단을 구매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행사에 참여한 직원들은 "졸업 입학 시기에 피해를 입은 지역 화훼농가들의 시름과 고통이 덜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청의 화훼농가 돕기는 지난 19일 조용식 청장이 '꽃 선물 릴레이' 행사에 참여한데 이어 화훼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졌다.

/강석훈 기자



전주 두 번째 코로나19 확진자 근무해 폐쇄된 건물  
지난 21일 코로나19 전주지역 두 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던 사무실이 있는 전주시 완산구 국민연금공단 전주지사 건물에 임시 폐쇄돼 출입을 통제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선거전담수사반 확대 운영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특별 근무 체제에 돌입한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총선에 대비하기 위해 '선거전담수사반'을 확대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기존 1개 검사실로 구성된 선거전담 수사반을 지청장(반장) 등 검사 3명, 수사관 13명 등으로 확대했다.

전담수사반은 관내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 연락망 가동 등 상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 수사 종료 시까지 실시간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경찰관, 속는 척 현금 수거책 유인해 검거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용식)에 따르면 지난 14일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려고 한 현금 수거책을 검거했다.

당시 전북 김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특별수사과 제1부 검사를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은 "금융범죄를 저지른 일당을 수사 중인데 압수한 증거물에 당신 명의의 통장이 있다"며 "그 통장으로 사기 피해 금액을 받아 피해자들이 당신을 검찰에 고소해 명의를 도용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산권 보호를 위해 우리은행 계좌를 해지하고 인출해서 보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전화를 받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경찰관은 112로 신고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과 계속 통화를 유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경찰관들과 협조해 은행에서 가짜 돈봉투를 만들고 현금 수거책을 유인했다.

현금 수거책 A씨는 돈봉투를 건네받으려는 순간, 인근에 매복중이던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2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서민 안심·안전·

행복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100일 특별단속을 실시 중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단속과 관련, 유관부서와 TF팀을 구성해 경찰 총력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검찰·금융원은 어떤 경우에도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만일 속아서 돈을 송금했다면 112 신고를 통해 금융기관을 상대로 피해금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 탄소·복합재 분야 인력양성 집중

### 전주시·탄소융합기술원,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사업 추진

전주시가 미래 먹거리를 대표하는 탄소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해 탄소·복합재 분야의 인력양성에 집중키로 했다.

시와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은 탄소섬유를 포함한 주요 탄소소재 개발, 중간재, 응용분야 등 핵심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2020년도 탄소·복합재 분야 전문인력양성과정'을 운영키로 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재직근로자의 직업훈련 참여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분야와 융복합 분야 등 전략산업에 대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함께 산업계가 주도하는 지역별 직업훈련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원은 지난해 12월말 고용노동부로부터 '탄소복합재료 입문', '탄소복합재료 성형' 등 총 30개 과정이 포함된 2020년도 교육과정을 승인받아 올해 881명의 수료생 배출을 목표로 탄소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기술원은 현재 '탄소기초입문' 과정을 개설해 첫 교육을 진행 중이며, '탄소복합재자동차부품제

조' 등 다양한 과정을 개설키로 했다. 교육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 재직자면 가능하며 교육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무료이다. 대기업 재직자는 교육비의 일부를 자부담해야 한다.

교육신청은 한국탄소융합기술원 탄소기술교육센터 홈페이지([hrd-kttech.re.kr](http://hrd-kttech.re.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취업연계과정은 하반기에 별도 공고를 통해 서류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0명을 선발한다.

이와 함께 기술원은 중소기업과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협약)을 구성한 기업 등에게 공동훈련에 필요한 인프라와 훈련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와 기술원은 지난 2012년부터 탄소복합소재기업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해 전국 탄소기술 관련기업 612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첨단 교육훈련장비 45종을 구축했다. 또 총 309개 교육과정을 개설해 5076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취업연계과정 수료자의 경우 91% 가량의 취업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http://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mailto:jjvs@hanmail.net)